



열 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마태복음(Matthew) 25:1-13 / 권준 목사(Pastor James Joon Kwon)

● 들어가기

그리스도인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를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 묵상하기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의 나라. 준비를 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 ()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둘째, 더욱 뜨겁게 ()하며 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 4:7-8)

셋째, 복음 ()의 삶을 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 적용하기

1.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지혜롭게 준비할 기름은 무엇인가요?
3.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다.’ 하시면 얼마나 비극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합당한 마음과 행실은 무엇일까요?